

□ 주요내용(현황)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활동 반경 축소 등으로 코로나 우울 극복에 기여할 통합된 산림휴양정보 홍보 시스템 구축 필요
- 산림휴양시설 방문객에게 폭넓은 참여기회 제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식 수요자 중심 개선 필요
- 휴양 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휴양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 필요

□ 추진실적

- 3백만원대 저비용 예산으로 도민편의를 위해 경남 산림휴양정보를 한곳에 통합하여 콘텐츠 제작, 운영
 - 도내 산림휴양시설 153개소 등록 및 산림교육서비스(숲해설 등) 안내
 - <https://www.gyeongnam.go.kr/forestrecreation/index.gyeong>
 - 휴양시설 객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연계 펜션 파악·정보제공(43개소)
 - 산림휴양시설을 총망라 해놓음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선택 정보제공
- 산림휴양시설 수요자 맞춤형 중심의 운영방식 개선
 - 치유의숲 : 현재 4개소의 치유의 숲에서 1~2일전 예약, 2시간 고정 프로그램 운영방식이었으나 프로그램 수요자 선택제, 당일 현장예약방식도 가능하도록 3개소에서 시범 운영 동참 추진
 - 치유의 숲 시설에 이용자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개선, 3개 시군 동참협조 추진
 - 자연휴양림 : 2일이상 휴가를 내어야 숙박 가능한 현재 이용시간을 하루만 휴가를 내더라도 휴식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일 휴가이용제 추진(시스템개선 전의 중-5개소)
 - 자연휴양림은 성수기(7~8월), 비수기 주말에만 예약률이 높고 나머지 비수기 주중에 예약률이 낮아 대책이 필요하였고, 도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
 - 1일휴가 이용제에 대해 도내 5개 휴양림 13개 객실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현재는 산림청에 협조요청 공문 시행한 상태임
 - 1993년 자연휴양림 개원이후 최초 시도,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임

- 경상남도 산림휴양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
 - 2021년 5월 개장한 지방정원 제1호 거창 창포원을 포함하여 상반기까지 자연휴양림 15개소, 치유의 숲 10개소, 유아숲체험원 8개소, 산림욕장 20개소, 생태숲 10개소 등 산림휴양시설 67개소를 조성·운영중
 - 자연휴양림 8, 치유의 숲 6, 산림레포츠시설 4개소 등 27개소 추가 조성 중
-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
 - 「경상남도 산림복지진흥계획」(2020~2024년)에 따라 민·관·학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자문단 운영(2021년 상반기 2건-산림레포츠사업 등)
 - 다양한 쉼터가 되어주는 산림복지 등 7대 전략 및 15개 이행과제 추진
 - 2021년 상반기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지원위원회 구성(9명) 및 운영
 - 금원산 향노화 치유힐링당지 조성 추진(100ha),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홍보
-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제공하는 지리산 산청 산나물 꾸러미 특판행사(1회)

□ 주요 성과(결과)

-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산림휴양 정책 시행(수요자 중심 운영방식 개선, 비대면 시대 가볼 곳 홍보 등)으로 산림휴양시설 방문 및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이용률* 제고
 - * 자연휴양림 등 이용객 : 1,130,123명, 산림휴양서비스 이용객 : 170,637명(2020년~2021.4월)
 -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취약계층) 혜택 : 경남 2,455명, 246백만원
- 경남 산림휴양정보 홍보 시스템 구축(2021. 3월)으로 검색편의 제공
 - 산림휴양 관련 각종 정보를 수시, 체계적으로 제공(255건 등재)
 - 온라인 통로 구축 등으로 접근성* 향상 * '21년 3월 말 이후 방문자 : 2,251명
- 코로나19 확산 대비 산림다중이용시설(수목원) 책임제 현장점검 운영
 - 방역조치 철저히 52천여명 방문(경남수목원 기준)에도 산림다중이용시설 내 확산세 없음
- 임산물 소득 증진 기여 및 지리산 산청 산나물 힐링 푸드 홍보
 - 두릅, 산마늘, 곰취 등 임산물꾸러미 995개 판매 완료, 매출액 1,360만원

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- 코로나 19로 인해 산림휴양시설 휴관 중인 시설이 다수 있어 산림휴양정보 시설 및 산림교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 한계
 - 산림휴양 관련 각종 정보를 수시·체계적으로 제공, 보도자료 외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방법 모색(네이버 배너 홍보 등)